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

사사기 21:16-25, 요한복음 18:33-38

최정웅 목사님

오늘은 어린이주일이다.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이 사사기 마지막 시간이 된다. 다음 주부터는 또 신약성경 강해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부분은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몇 번 고민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포하고 전달해야 하지 않겠나. 보고 듣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린이아가 없는 세계를 생각해 보라. 우리 집에 아기가 일 년 쯤 있다가 갔는데 눈에 너무 밟힌다. 겨우 ‘할아버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아기가 있을 때 가정에 생기가 돌더라. 아기가 없는 13년 동안 이 가정이 힘들었겠다 싶었다. 아이들이 생명이고 소망이고 미래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 정말 올바른 언약을 심어야 되겠다. 지금 4천 년 전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때의 이야기가 지금과 어찌면 똑같은지 모른다. 정말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오늘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이야기를 묶어서 하려고 한다.

레위인 한 사람이 잘못되었다. 첩을 얻은 것이다. 이 여자가 그런데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행음을 한 것이다. 자기 남편이 무서워서 친정으로 도망을 갔다. 그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된 남편이 첩을 찾으러 장인 집에 간다. 그래서 찾아서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데, 좀 멀었던 것 같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거쳐서 가는데, 그 동네에서 밤이 되어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다. 한 할아버지의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소동과 고모라 때와 비슷하다.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간 레위인을 내나라, 우리가 그 자와 상관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하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나와서, “애들아, 그것은 안 된다.” “안 하면 나와 너희 집을 다 죽이고 불을 지르겠다.” 이렇게 공갈을 치니까 응답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첩을 내어줄 테니까 남자에게는 상관하지 마라.” 그래서 레위 남자를 설득해서 그 여자를 내보냈다. 밤새껏 이 불량한 아이들이 여자를 농락하고 마지막에는 죽였다. 이 레위 남자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너무 분한 것이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죽은 자기 여자를 열두 토막을 냈다. 지금 일어나는 일과 똑 같다. 그래서 열두 지파에게 보낸 것이다. “이스라엘에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처리해 달라.” 이 억울하고 분한 일을 처리해 달라라는 것이다. 그래서 열두 지파 두령들이 모였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온 지 40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의 일이다. 세월만 지나면 언약을 놓치고, 조금만 지나면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지면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령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가서, ‘저 강패들을 내나라, 저들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이 없게 하겠다’ 한 것이다. 그런데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아들인데, 그 후손들이, “우리는 내어줄 수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떻게 내어주느냐.” 이렇게 요구해도 안 내어주니까 결국 전쟁이 붙은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했는데, 전체가 모야도 Oneness가 안 되는 것이다. 남의 일인데다가 자기 막내동생 죽음을 쳐야 하니까 시원찮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전쟁에 진다. 결국 나중에 화가 난다. 돌아가서 회개하고, 그때 비로소 희생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때 비로소 드리고 회개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냐민 지파가 지게 하셨다. 그전과 같을 줄 알고,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당당하게 싸우는데, 이번에는 아닌 것이다. 결국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 지파에 속한 여자들은 하나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다. 남자도 다 죽었는데 겨우 600명이 살았다. 그들까지 다 죽으면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하자 해서, 결국 600명만 남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것이다. “절대 우리 딸들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주지 말자. 주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세를 해 버렸다. 다른 것은 다 어기면서 이런 맹세는 또 잘 지킨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동성애는 맞지 않다. 전 세계 민족이 동성애를 하면 후대가 없어져서 멸망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금지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편법을 만들어낸다. 정식으로 결혼을 시킬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축제를 할 때가 있다.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춘다. 이때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와서 여자들을 보쌌는데 가도록 한 것이다. 나중에 와서 ‘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느냐’ 하면 우리가 양해를 해 주겠다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게 된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어째서 이런 슬프고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개인의 영적 문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레위인이 왜 첩을 얻으며, 왜 이 여자는 행음을 했는가. 이런 영적 문제에서 큰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둘째는, 한 지역의 영적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났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동성애와 음란이라는 영적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한 여자가 살해당하게 되었다. 개인의 문제, 지역의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온 나라에 내전이라는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산다. 이것이 일곱 램넛트였다. 반대로 한 사람이 영적 문제에 빠지면 이것 때문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된다.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어린이와 후대들에게, 재앙을 막는 복음의 비밀을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전달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모든 중직자들은 태영아부부터 대학청년부까지 모든 램넛트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한 사람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한 지역이 망하고 한 나라가 망하게 된다. 램넛트들은 잘 새겨들어야 한다. 이제부터 두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겠다.

1.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잘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

(1)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Oneness를 회복하게 되었는데, 언제였는가? 끔찍하고도 무서운,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범죄가 발생하고 재앙을 만난 후에야, 너무 어이가 없고 슬프고 화가 나는 일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Oneness를 이루게 된 것이다.

(2)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책임을 묻겠다,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하고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 거절했다.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큰 문제가 왔는데도, 그것을 두고도 자기 지파 이익만 찾았다. 이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었다.

(3) 그런데 너무 억울하게도 계속 지는 것이다. 당장 힘을 모아서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은 고사하고 자기들이 진다. 몇 차례 전쟁에 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래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다. 대체사장을 불러서 피 제사를 드린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일이 이때에야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피 제사가 이때 회복되었다. 한동안 피 제사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아닌가. 억울하고 분한 사건, 참담한 일을 당한 뒤에야 회복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왜 인간은 이렇게 얻어맞아야, 죽음에 임박하고 어려움과 재앙과 저주 속에 처해야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안타까운 노릇이다. 처음부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갔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 아닌가.

(4)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잘못된 맹세를 했던 것이다. “누구든지 저 악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보내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이다.” 자기들이 결정해 버렸다. 이런 것은 종교적인 문화다. 헛된 맹세를 가지고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 입대를 통해서 이미 봤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에는 자기 딸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한 족속이 완전히 없어질 판이 된 것이다.

(5) 결국 마련한 대책이, 베냐민 남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를 납치해서 결혼하는 것이었다. 약속의 후대를 남기기는 했는데, 이게 순리대로 되지 않고, 역지로, 겨우겨우 남게 되는 역사를 쓰고 말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을 회복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거의 대부분 역지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Oneness도, 피 제사도, 후대 회복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은 이것을 성령인도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니까, 멸망에 처하니까, 그래서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요즘 한기총과 한교연이 하나되자, 합치자 한다고 한다. 좋을 때에 ‘정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자’ 하면 얼마나 좋겠다. 듣자하니 한교연 측의 주요 교단인 통합측이 운영비를 안 내놓는다고 한다. 그래서 한교연이, 그 직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월급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면서 하나되자고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민족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하게 되겠는가. 남북

한 민족이 다 망하게 된다. 그런 지경에까지 가서 하나가 되면 되겠는가. 사랑 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꼼꼼이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 우리가 멸망 속에 있는가, 아니면 억지 회복 속에 있는가, 아니면 참 순리와 성공 속에 있는가. 한 주간, 한 달 동안,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생각해 보자.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를 보면, 국회를 보면, 세계 현장을 보면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멸망당하기 전에, 재난이 이르기 전에,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Oneness를 위하여, 피 제사를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하도록,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2.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

두 번째 목상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세우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이다. 은혜로우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게 복음이다.

(1)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기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그 백성이 언약을 놓쳐 버려도, 스스로 그 약속을 놓치고 멸망 길로 계속 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배반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2) 그 버리지 않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문제를 주신다. 어려움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붙잡도록, 회복하도록, Oneness가 되도록, 후대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늘 체척질하는 분이 아니시다. 예레미야가 밝혔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려 하는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러나 전혀 안 들으니까, 그 방법으로 안 되니까. 회한하다. 조금만 밥 한 술 제대로 먹게 되면 바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필요 없다고 한다. 잘못했다고 해라 하면 안 한다. 얻어맞아야 비로소 울면서 잘못했다고 한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다. 인류가 그렇게 해 왔던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나 멸망해 가는 인생을 살리고 고치고 돌이키고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쓰실 뿐이다. 반 죽게 되었을 때 돌아서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기 바란다. 손을 다 들어라.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항복해야 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는 안 해요.” 그러다가 콧방망이를 얻어맞고, 팔다리 다 부러지고, 집이 다 파산해야 돌아오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지구를 향한 매를 수없이 들고 계신다. 사실 이 매를 인간 스스로가 준비해서 가지고 있다. 지구를 몇 십 번이고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을 인간이 만들었지 않나.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목상하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버리고, 계속 멸망 길로 가게 되면 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문제를 던져주고,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안 붙잡으면 안 되니까 겨우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사사기의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세계를 보라.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 순간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지금 그리스도 부르지 말라고 한다. 그리스도를 못 부르게 한다.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한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 딱 이것 아닌가. 이런 악한 시대가 된 것이다. 중국에서도 주석이,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다. 종교 같은 것 의지하지 마라.” 저 사람이 매를 벌고 있구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싫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나. 중국 역사상 70년 이상을 통일되게 전쟁 없이 간 적이 없는데 지금 중국 공산주의가 70년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다(시14:1). 문제가 안 오면 좋겠지만, 언약을 놓치는 것 보다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언약을 붙잡는 게 더 낫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복음을 회복하도록 문제를 던져주신 것이다.

(3)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결국 중요한 두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다.

① 사사기 내내 잊고 있었던 피 제사를 회복시켜 주셨다. 고난당하고 죽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데, 사사 13명을 지나면서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시키신 것이다.

② 그리고 또 무엇인가? 세계복음화할 후대다.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멸망을 당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하나,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그 후대가 이어지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임금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있다. 누구인가?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인물이다.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세계를 살릴 후대가 이 위기 속에서 보존되었던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억지 응답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점검해 보시기 바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깊이 목상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사사기를 마치면서, 사사기 전체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미션이 있다. 사사기 전체의 요점 성경구절이 본문 마지막에 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되어 있다.

(1)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된다. 무슨 말인가?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의 각인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창세기 6장, 사단 문화가 육신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창세기 11장 성공만 지향해 나가면, 결국 성공이 아니라 멸망만 오기 때문이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를 늘 생각해야 한다. 내 이익도, 우리의 이익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거나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무너지고 민족과 세계가 망하게 된다.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란다.

(2)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 우상 문화다. 그 결과로 저주가 계속 온 것이 사사기 전체다. 자기 중심에서 창3, 6, 11장에 빠지니까 우상 문화가 들어오고, 그 저주가 후대에게 미친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3)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 왕이 오셔야만 하는 것이다. 참 통치자가 오셔야만 한다. 이미 계신 참 왕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으니까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해 보라. 내가 주인이면 결국 세상에, 사단에게 끌려가서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것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왕을 보내셨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우리 후대의 참 왕이 되신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도만 승리할 수 있다. 사단의 계계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왕이시다. 이것을 굳게 붙잡고 모든 동기를 바꾸게 되시기 바란다. 우리의 주인을 그리스도도 바꾸면서 참된 응답을 받는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란다. “주여,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나의 사업의 주인, 나의 미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선장 되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 우리 후대, 어린이들에게 재앙이 들이닥치지 못하도록, 정말 완전 복음을 회복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사사기를 목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사기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이제는 얻어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들겨 맞아 멸망지문(滅亡之門)에 이르기 전에,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신 언약을 경건히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음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한 달 살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신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